

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격차 1.7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점차 벌어져 최근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 일자리 위주로 된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저임금 중심의 2차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적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부 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보고서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조사 등을 토대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초 1.1배 정도였던 양 집단간 임금격차는 2014년 1.7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추경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한은 BOK경제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대응' 이중구조 줄이려면 1차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해야

대폭 상승했다.

노동 이동성도 악화됐다. 중소기업 취업 1년 이후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4~2005년 3.6% 수준에서 2015~2016년 2.0%로 하락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8%에서 4.9%로 떨어졌다. 진입료가 비싸아 진출이 어려운 1차 노동시장의 임금만 치솟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1차 노동시장의 유연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중구조 정도가 각기 다른 스웨덴,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의 정책에서 해법을 모색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연대 임금정책'을 펼친 스웨덴, 사회적 협약을 거쳐 '유연안정성 모델'을 세운 네덜란드 사례에 비추 노동시

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착한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성공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고와 같은 당사 사회적 저항이 높은 제도보다는 호봉제 폐지 등 임금이나 직무체계 개선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 순히 '무늬만 연봉제' 형식의 임금 개편이 아닌 직무, 직능 생산성을 반영하는 '직무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금격차를 직무별, 숙련별로 공개하는 '정공법'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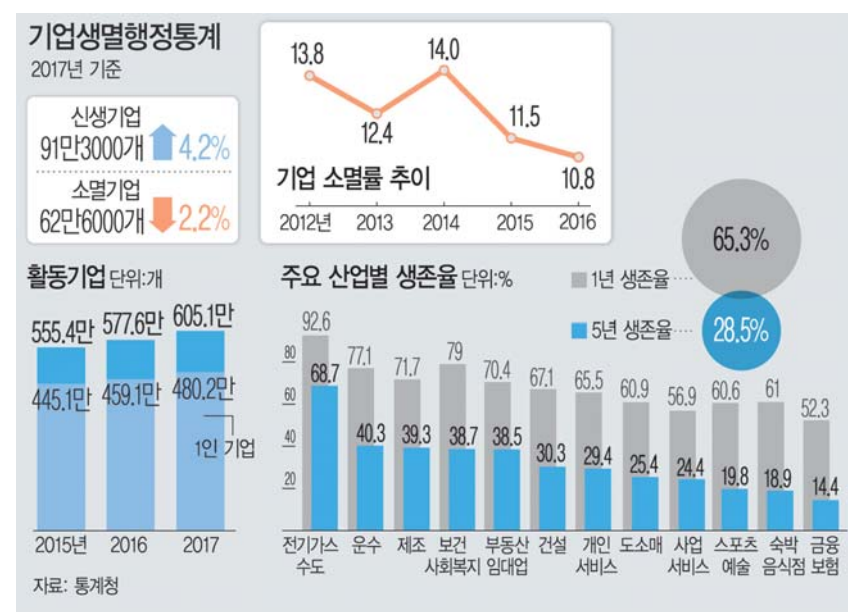
서는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다.

기업 차원이 아닌 사업이나 업종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별교섭, 단체협약 효력확장, 개별임금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험적으로 도입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기업 독점 규제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2차 노동시장 안전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 속해 있어 최저임금과 같은 가격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규제 정책과 보호 정책을 적절히 배정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 정착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스



작년 신생기업, '부동산업' 비중 '1위'...60세 이상은 12.3% 급증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발표...신생기업 91만3000개

지난해 문을 연 신생기업 가운데 '부동산업'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기업은 606만000개로 전년 대비 27만5000개(4.8%) 증가했다. 법인기업은 62만000개(10.3%), 개인기업 542만900개(89.7%)로 집계됐다.

활동기업을 산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10.5%), 부동산업(9.5%), 정보통신업(7.7%) 등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높았다. 기업수는 도·소매업(141만4000개), 부동산업(127만개), 숙박·음식점업(82만7000개)이 지난해 전체 활동기업의 58.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1인 활동기업은 480만 2000개로 전체 활동기업의 79.4%를 차지하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반면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은 232만8000개로 전체 활동기업의 38.5%로 2013년 이후 4년째 비중이 확대되며 역대 최다기록을 갱신했다.

지난해 신생기업은 91만3000개로 전년 대비 3만7000개(4.2%) 증가했다.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 수를 따지는 신생률은 15.1%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신생기업을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업(18.5%), 사업시설관리(16.5%), 교육서비스업(7.8%) 등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수는 부동산업(21만6000개), 도·소매업(21만개), 숙박·음식점업(16만3000개)이 전체 신생기업의 64.5%를 점유했다.

중소기업 1인 신생기업은 81만 9000개로 전체 신생기업의 89.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대표자가 여성인 신생기업은 42만 1000명으로 5.3% 늘었다. 특히 대표

자 연령대로 60대 이상은 12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2.3% 급증했다.

소멸기업은 2016년 62만6000개로 전년 대비 1만4000개(2.2%) 감소했다. 활동기업 수 대비 소멸기업 수인 소멸률은 10.8%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소멸기업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8%), 부동산업(-6.0%), 운수·창고업(-5.4%) 등이 감소했다. 기업수별로 도·소매업(16만6000개), 숙박·음식점업(14만2000개), 부동산업(10만8000개)이 전체 소멸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1%였다.

중소기업 1인 소멸기업은 57만 4000개로 전년대비 2.6% 줄었으나 전체 기업의 91.6% 수준이다. 대표자가 여성인 소멸기업은 2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남성이 대표인 기업은 33만4000개가 소멸하며 전년대비 3.5% 줄어들었다.

2016년 활동기업의 전년도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이후 1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생존율(2011년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28.5%를 기록했다.

산업별 생존율은 1년과 5년 모두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장 높았다. 반면 1년 생존율은 '금융·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이, 5년 생존율은 '금융·보험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지난해 경기 호조로 신생기업은 늘고 소멸기업은 줄었으며 신생기업 생존율도 상승했다"며 "다만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늘어난 점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경기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경제전문가들 "내년 한국 성장률 2.5% 기준금리, 동결 혹은 한 차례 인상될 듯"

내년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거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 실린 '4분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

원만해지면서 실업률은 3%대 후반을 지속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글로벌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돼 내년에 급락기준으로 4%대 초반의 낮은 증

KDI 경제동향 12월호 실린 4분기 설문조사 결과

"실업률 3%대 후반 전망...취업자수 10만명 내외"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 확대 모양새"

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5%로 전망됐다.

지난 8월호에 실린 3분기 설문조사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로 2.8%를 제시했다. 넉달만에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씩 추락한 것이다. 이날 설문조사를 보면 성장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향조정됐다. KDI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실물경기의 흐름이 예상보다

가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750억 달러보다 축소된 61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소폭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1%대 중후반 수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들은 내년 기준금리에 대해선 다수가 동결을 예상했고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스



금호고속 '남도한바퀴' 성황리 종료

이용객 전년비 24% 증가

금호고속과 전남도가 5년째 함께 운행해 온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프로그램 '남도한바퀴'가 고객들의 큰 사랑 속에 최근 올해 운행을 모두 마쳤다.

금호고속은 올해 '남도한바퀴' 이용객이 전년대비 24% 늘어난 3만 8866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9일 성황리에 운행이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지역 역사 유적지와 관광명소, 체험·테마파크 등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남도한바퀴는 올해 3월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63회가 운행됐다.

이 기간 이용객수는 3만8866명으로 지난해 3만983명 대비 738명이 늘어났으며, 1회당 평균 이용객 수는 36.1명으로 지난해 32.3명 대비 3.8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증가는 22개 시·군을 경유하는 총 26개의 다양한 노선 운영, '20개에 머물던 관광코스 상품'을 26개까지 확대, '모바일 스탬프 모으기, 여행후기 작성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 '월요일 코스 신설'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10월22일에는 운행 8개월 만에 이용객이 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정환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